

# ‘여수 국제 섬 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본격 돌입

2026년 개최 목표 연구용역 착수  
25일 시민 포럼 출범 섬투어·홍보  
2021년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신청

민선 7기 여수시가 본격 추진 중인 ‘여수 국제 섬 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여수시는 지난 16일 시는 (주)플레이스랩과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플레이스랩은 수많은 국제행사를 치러낸 전문 연구용역 업체로 최근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력을 갖춘 회사다. 이번 연구용역 체결로 용역사는 8개월 동안 기초 조사와 자료수집, 섬 생태와 문화 탐방,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본격 수행한다. 이를 통해 여수 국제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최종 용역 결과물은 착수보고회, 설문조사, 공청회, 중간보고회, 부서 의견 수렴, 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완성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용역 결과에 맞춰 2020년 상반기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국제행사 개최를 협의한다. 이와 함께 2021년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하고, 박람회 개최 전까지 11개 연륙·연도교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여수시는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참여와 홍보에도 나선다.

우선 25일 시민 190여명으로 구성된 여수 섬 박람회 시민 포럼이 출범되고 포럼에서는 섬투어와 섬 박람회 홍보, 섬 전문가 초청 강담회 등 여수 국제섬박람회 알리기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오는 8월에는 목포시·신안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회 섬의 날 행사에 참여해 여수의 365개 섬과 11개 연륙·연도교를 주제로 한 체험 이벤트도 진행한다. 앞서 전남도는 오는 2027년 개최를 목표로 인정 엑스포인 ‘국제 섬 문화 박람회 유치’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전남 TF팀을 꾸려 오는 2026년 국제 섬박람회를 추진 해 온 여수시와 중북·혼선을 빚었지만 양 측의 협력이 이뤄지면서 여수 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전남도 발표로 논란이 확산되자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과 전남도 관계자 등 실무 책임자들이 여수시청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엑스포 개최 시점을 2030년 이후로 미루기로 전격 협의했으며 여수시의 국제행사 개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재풍 여수시 박람회 과장은 “전남도와 여수시가 추진하는 박람회는 성격 자체가 달라 통합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며 “올해 말 박람회 유치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모두 마무리되면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기재부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여수 섬박람회는 국제행사 승인(기재부) 후 비공인 엑스포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전남도의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 엑스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띤다.



여수시는 최근 (주)플레이스랩과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수 국제 섬박람회’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섬들로 장관을 이룬 백야도 일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수시가 추진하는 섬 박람회는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화태~백야 등 여수가 보유한 아름다운 섬을 잇는 연도교가 완공되는 시점인 2026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국·도비 등 200억 원이 투입 될 예정으로 아름다운 여수의 섬 생태와 관광자원을 콘텐츠로 선보일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여수의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여수 국제 섬박람회가 꼭 필요하다”며 “박람회 성공개최로 지역경제 윤희효과는 물론 여수시를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해양휴양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내외국인 21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세계박람회장과 도서 일원에서 1개월 간 펼쳐질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거문도 방문 외지 관광객  
여객선 요금 50% 지원  
여수시 11월~내년 2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여객선 요금의 50%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여수시는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여수-거문도항로 여객선비를 50%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문도 도착 전 여객선이 서는 초도와 손죽도도 마찬가지로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상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비수기 섬 관광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액 50%는 여수시가 40%, 여객선사가 10%를 부담한다. 시는 관광객 유입 효과 등 전반적인 추이 변화를 살펴보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웅진군의 경우 타지역민 여객선비 지원을 통해 10.5%의 관광객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이번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손님맞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세계인의 날’ 행사 성료...700여명 참석 소통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유병길)가 세계인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2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여수시 화장동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 유학생 등이 참여한 ‘제12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여수-순천-광양시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자녀, 박성근 광주지검 순천지정장과 장인식 여수해경서장, 정효성 순천의로원장 등 지역 외국인 관련 주요 기관·단체장 및 사회 통합 교육기관, 지역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후 펼쳐진 어린이 실장구, 필리핀 전통춤, 댄스스포츠,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은 물론 볼스레이·지구 굴리기 등 명랑운동회가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와 함께 세계인의 날을 주제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그린 그림 전시와 유학생의 한국 생활 후기 낭독 및 입상자 시상도 진행됐다. 수기 부문 금상은 전남대 영어영문과 1학년 재학 중인 핀란드 유학생 엘리사베스에게 돌아갔으며 그림부 부문 최고상은 여수 죽림초등학교 최슬기양(11)이 수상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대학생 포지로브는 “한국에 온 후 가장 즐겁고 유익한 날일만큼 오늘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는지 진심으로 알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병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화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출입국 사무소는 국적법 개정 시행이후 국적 허가자의 경우 국적신청서를 해아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 지난해 11월 27일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귀화 예정자 6명에게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범 실시한 바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 기업사랑·지역사랑 음악회  
24일 이순신광장서 개최

여수기업사랑협의회(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박용하)는 24일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2019 상반기 여수 기업사랑·지역사랑 음악회’를 개최한다. 여수 기업사랑·지역사랑 음악회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여수 만들기, 기업인이 존중받는 문화정착을 위해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해 해마다 2차례씩 이어오고 있다. 여수기업사랑협의회는 음악회를 통해 기업인과 시민이 함께 만들고 시민과 기업이 즐거운 화합의 음악 행사를 만들어 왔다. 올해 ‘2019 상반기 여수 기업사랑·지역사랑 음악회’는 신촌 블루스, 하성관, 퓨전국악 마로를 비롯해 활동이 활발한 유명 밴드, 댄스동아리 등이 이순신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 오른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기존 음악회와 차별화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음악회를 만들고 가족 단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장소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기업사랑 음악회를 통해서 여수시민은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은 시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된다. 43인치 LED TV, 자전거, 에어프라이어, 주방용품세트 등 많은 경품이 관람객 품으로 돌아간다. 한편 여수기업사랑협의회에서는 여수기업사랑·지역사랑 음악회를 포함해, 여수법시민단체 민턴대회, 기업사랑 학생백일장, 찾아가는 경제교실, 기업사랑 학교방문 강연회, 여수국가산업단지투어 등 시민이 기업과 함께 공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안한다  
여수시 점검반 매주 단속 나서

여수시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중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와 음식물 혼합 배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다. 실제 불법투기 사례는 검정 비닐봉투 등 유사 봉투를 사용하거나 컵라면 용기 또는 배달음식 용기를 재활용 쓰레기로 함께 버리는 것이다. 여수시는 이같은 불법을 막기 위해 불법투기 점검반을 매주 운영중이며 위법 사항 적발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춘순 여수시도시미화과장은 “최근 여수시 만흥매립장에 상주중인 주민 감시원들이 불법투기 쓰레기 적발과 폐기물 반입을 막고 있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행정처분, 수거 거부 등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감시원과 만흥동반영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